opusdei.org

교황님께서 청년들과 하신 밤새기도와 대화. 청년들의 희년. 토르 베르가타.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어떤 종류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종류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삶의 시련을 통해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2025-8-2

밤새기도와. 청년들의 희년. 2025년 8월 2일 토요일.

탁월한 선택은 실제로 우리 삶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종류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삶의 시련을 통해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이 기억은 탐구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상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정들에서 이 은총을 인식하고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임이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또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것이 때때로 우리를 막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안정된 토대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반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반석은 우리보다 앞서고,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 결정은 우리에게서 어떤 선도 빼앗지 않고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는 판단입니다.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gyohwangnimggeseo-ceongnyeondeulgwa-hasin-bamsaegidowa-daehwa-ceongnyeondeulyi-hyinyeon-toreu-bereugata-2025nyeon-8weol-2il-toyoil/ (2025-11-27)